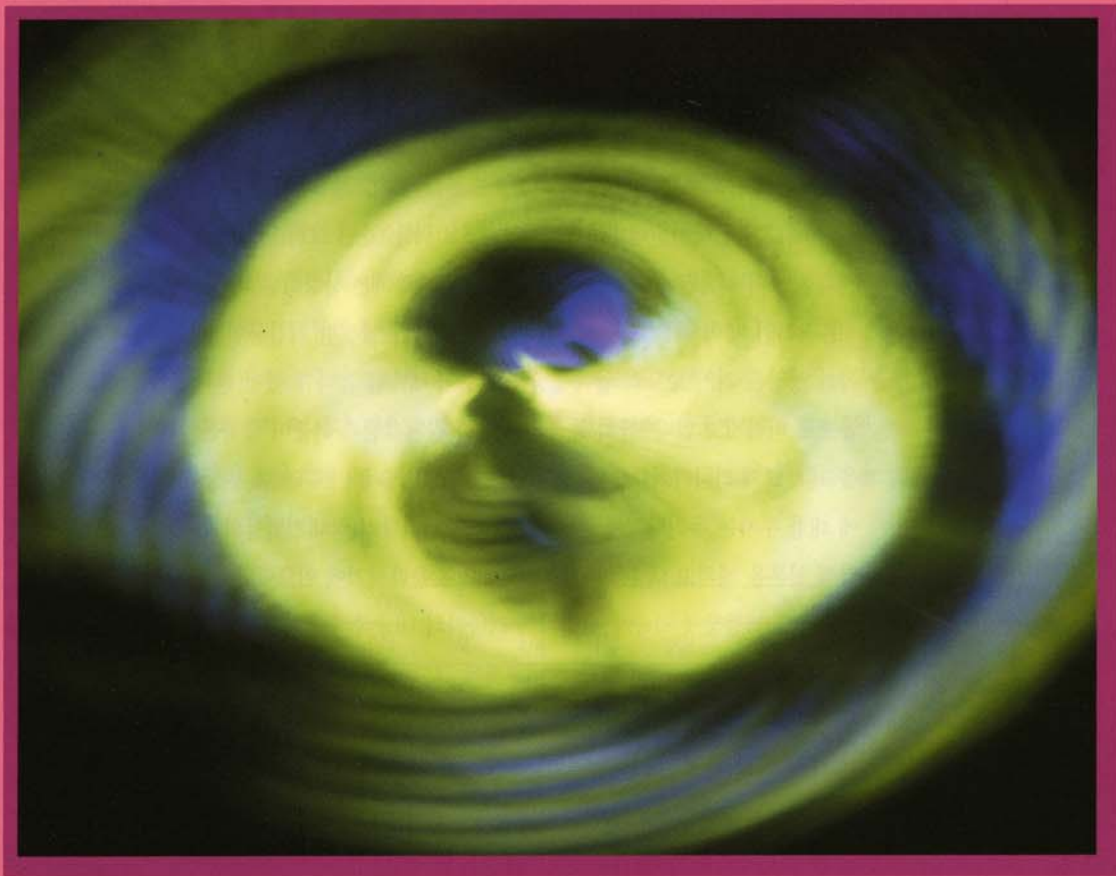


산학리뷰

2004년 8월 / 제15권 제8호 (통권 160호)



2004. 8

CONTENTS

- 2 • 산학칼럼 / 과열경기 진정대책 이후의 중국경제동향과 전망 6 • 이달의 쟁점 / 고속철도 대구 도심 통과구간 건설대안 탐색
- 10 • 경영 · 기술정보 / 실내공기 오염대책의 현상과 전망 15 • 제171차 월례세미나 / IT Revolution 20 • 대덕단상 / 마라톤과 건강
- 24 • 용역보고 / 지방은행의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SWOT)분석과 전략 31 • 연구원 소식 32 • 회원동정 34 • 신학도서목록
- 35 •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과열경기 진정대책 이후의 중국경제 동향과 전망

김주훈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장

1. 서언

중국TV는 등소평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프로그램의 홍보에 한창이다. 중국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 구체화된 것은 1987년 중국공산당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였다. 그 뒤 1992년 그의 남방지역 순방으로 만개하기 시작한 그의 이론은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는 사상적 토대를 이루어왔다.

본격적인 개혁·개방이 시작되지 불과 20여 년 남짓한 기간동안 중국경제가 이룩한 급속한 성장은 과거 고도의 압축성장을 이루어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민의 눈에도 경이로움으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중국은 이미 지난해에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대상국(수출비중 18.1%)으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가 금년 상반기 중 35억달러(국내기업들의 현지투자자액 포함)에 달해 일본을 제치고 대중국투자 제1위국으로 올라서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호조를 보임에 따라 내수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경제에 그나마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과열기미를 보여온 중국경제가 갑자기 덜컥거리기라도 한다면 그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이전이 계속되고 있고 해외수출시장에서 대부분 수출품목이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편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2. 과열경기 진정대책 이후 중국경제 동향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 연평균 7~8%의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경제는 작년 중에도 수출호조에 따른 제조업 생산증가와 높은 고정투자증가세 등에 힘입어 9.1% 성장한데 이어 금년 1/4분기 중에도 9.8%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건설 등 일부부문을 중심으로 과열조짐이 지속되고 국제적인 원자재파동을 야기하기에 이르자 중국정책당국은 강도 높은 과열경기진정대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진정책은 중앙은행의 기준율 인상, 제한인율 및 중앙은행 대출금리 인상, 중앙은행 어음발행을 통한 과잉유동성 흡수, 과열부문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 연평균 7~8%의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경제는 작년 중에도 수출호조에 따른 제조업 생산증가와 높은 고정투자증가세 등에 힘입어 9.1% 성장한데 이어 금년 1/4분기 중에도 9.8%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건설 등 일부부문을 중심으로 과열조짐이 지속되고 국제적인 원자재파동을 야기하기에 이르자 중국정책당국은 강도 높은 과열경기진정대책을 실시하였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규제적 행정 조치를 포함한 과열경기 진정대책은 과거 몇 차례 경험한 바와 같이 경기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나오고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과거와 같은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의 고속성장을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대출억제 등과 같은 통화금융정책뿐 아니라 추진중인 건설프로젝트의 제한, 기타 불필요한 고정자산투자 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강도 높은 과열경기 진정대책으로 중국경제는 5월 이후 고정자산투자 및 산업생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은행대출의 신장세가 둔화되는 등 실물부문 및 금융부문 전반에 긴축조치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2/4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1/4분기(9.8%)에 비해 소폭 낮은 9.6%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매월 전년동기대비 40~50%의 신장률을 보이던 고정투자는 5~6월 중 30%초반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6월말 총통화증가율은 단기대출의 급감으로 전년동월대비 16.2%를 기록함으로써 금년 목표치(17% 내외) 이하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물가오름세가 식료품가격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전력 등 에너지 공급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아직까지 경기과열이 완전히 억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정부도 경기과열 억제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주요 지표들의 움직임에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中國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02	2003					2004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GDP 성장률	8.0	9.1	9.9	7.9	9.6	9.9	-	-	9.8	-	-	9.6	-
산업 생산	12.6	16.7	17.2	15.2	16.6	17.7	7.2	23.2	19.4	19.1	17.5	16.2	15.5
소매 판매	8.8	9.0	9.2	6.8	9.7	10.3	11.8	9.2	11.1	13.2	17.8	13.9	13.2
고정투자 ¹⁾	17.4	28.4	31.6	32.8	31.4	28.4	-	53.0	47.8	42.8	34.8	31.0	-
수출	22.1	34.7	33.5	34.3	29.7	40.5	19.8	39.5	42.9	32.4	32.8	46.5	33.9
소비자물가	-0.8	1.2	0.5	0.7	0.8	2.7	3.2	2.1	3.0	3.8	4.4	5.0	5.3
총통화(M2) ²⁾	16.8	19.6	18.5	20.8	20.7	19.6	18.1	19.4	19.1	19.1	17.5	16.2	15.3

주: 1) 누계 기준, 농촌 제외

2) 말잔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인민은행

중국정부의 이러한 규제적 행정조치를 포함한 과열경기 진정대책은 과거 몇 차례 경험한 바와 같이 경기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과거와 같은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중국경제의 경착륙경험은 1993~1994년의 예를 들 수 있다. 당시 중국정부는 과열된 국내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주가 폭락, 경기 급랭의 상황

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당시와 비교할 때 지금의 정치경제적 여건은 지난 10년동안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경착륙을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우선 첫째로 경제시스템 및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크게 개선된 점을 들 수 있다. 90년대 초반에는 경제시스템이 계획경제의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지금은 시장경제를 상당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세수입이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비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입장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중앙정부가 세수의 약 57%를 징수하는 등 재정면에서도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두 번째로 최근의 중국거시경제상황은 1993~1994년과 비교하여 매우 건실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1993~1994년에는 물가상승률이 10~20%의 고수준에 이르고 경상수지도 적자상태인데다 GDP에 대한 외환보유액 비중도 3%대에 불과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의 경기진정대책이 취해진 경우였다. 그러나 최근의 중국경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제조업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도 90년대 초에 비해 매우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역수지 흑자추세의 지속과 계속되는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700억달러에 달하며 GDP에 대한 비율이 94년의 약 4%선에서 거의 30%로 급증하였다.

끝으로 중국의 정책당국자들에 의한 정책실패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시장경제이론으로 잘 무장된 관료들이 핵심부처에 많이 배치되었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정책당국자들이 당면한 경제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번의

정책적 실패를 거울삼아 정책의 결정 및 운용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를 안착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최근 중국정부가 취한 경기과열 진정대책에 인위적인 행정조치 등의 反市場의인 조치들이 많이 포함된 데 대해 그 부작용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광활한 영토 위에 아직 많은 비시장적 요소들을 안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次善(second best)으로써 이러한 조치들의 선택이 불가피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가 점차 안정되어 간다면 금리조정 등과 같은 전통적인 거시경제조정정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열업종들에 대한 프로젝트 취소, 대출중단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금융부문의 부실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중국정부당국이 발표하는 은행금융기관부실채권 비율은 2000년대말의 29.2%에서 2003년말에는 15.2%, 금년 6월말에는 13.3%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특히 국영기업들을 대상으로 비효율적으로 금융대출이 이루어진 부분이 적지 않지만 중국정부가 1999년 국유상업은행이 부실채권처리전담을 위해 4개의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고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이러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및 주식사회화를 통한 해외상장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작년말 외환보유액을 재원으로 건설은행 및 중국은행에 대해 450억달러의 자본금을 확충한 데 이어 현재 이들 두 은행이 보유한 부실자산 중 4,810억위안(2004. 3월말 현재 전 은행권이 보유한 부실자산 2.1조위안의 235에 해당) 규모를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매각 또는 중앙은행발

행어음에 의한 매입방안에 의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리방안이 마무리되면 상기 두 국유은행이 무수익여신비율이 5%포인트 이상(2004. 3월말 현재 건설은행과 중국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은 각각 8.8%, 14.85)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중국정부는 내년말까지 두 은행의 해외상장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3. 중국경제의 급부상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의 중심국가로 떠올랐다. 한반도의 44배에 달하는 광활한 땅에 세계 500대 기업 중 약 400개 기업과 전세계 각국으로부터 유입된 엄청난 규모의 직접투자, 거의 무한정으로 공급되는 저임노동력, 과거 4,000년에 걸쳐 축적된 상업주의 기질이 함께 융합되어 오늘의 변화를 가져 왔다. 그동안 중국의 초고속 성장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에서 발표된 보고서들은 중국이 급세기 중반 2050년까지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급성장예에 대해 특히 기술력이나 자본력에 뒤처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문제가 화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불안해 하며 움추러들어서는 안되며 중국의 고속성장을 기회로 활용하자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과 경쟁되는 산업부문의 경우 무엇보다 기술개발에 한층 힘을 기울여 가격경쟁면의 열위를 기술과 품질면에서의 우위로 극복해나가는 길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 단순히 저임금만을 겨냥하여 중국이나 기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일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기술력 있는 핵심소재·부품 등과 같이 중국의 산업구조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앞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기에 유망산업으로 지칭되는 물류, 관광·문화컨텐츠, 기타 지식기반 산업분야 등의 개발과 발전에 힘을 기울여 나간다면 중국의 급부상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속철도 대구 도심 통과구간 건설대안 탐색



곽종무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선진국 수준인 시속 300km로 달리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이 금년 4월에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전, 대구 등 대도시 통과구간은 기존 철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 2단계 개통까지 도심 통과구간에 대한 신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철도청에서는 고속철도 도심 통과구간을 지상화할 경우에 기존 지하화와 지상화의 공사비 차액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는 기존 철로주변을 개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실상 고속철도 도심 통과방식을 지상화로 변경하였다. 반면에 대구 도심 통과구간은 기존 방침인 지하화와 함께 지상화 청원이 접수되는 등 아직 확정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속철도의 도심통과 방식은 주민의 이해관계도 걸려있지만 도시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안을 결정할 경우에 먼저 사업 목적이나 배경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업목적이 결정되고 나면 이에 적합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여야 한다. 대안 탐색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 결정에서 최적의 결과를 낳지 못하는 수가 있다. 충분하고, 적절한

대안 탐색이 이루어진 다음에 각 대안을 여러 가지 계량분석 방법이나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고, 최적의 대안들을 도출한 다음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가치판단에 의하여 최종 정책결정을 하여야 한다. 고속철도의 도심 통과방식을 결정하는 문제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의의 목적은 최근 지상화와 지하화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고속철도의 대구 도심 통과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여 봄으로써,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대안을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고속철도 건설 경과 및 도심통과 방식

경부고속철도는 연장 총 412km이며 구간 총 공사비는 약 18조 4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이다. 이 중에서 서울~대구간 1단계 구간은 2004년 4월에 개통되었고, 2단계 구간인 대구~부산간과 도심 통과구간은 2단계 공사기간인 2010년까지 완료된다. 2단계 공사비는 약 5조 7천억원 수준이다. 대구광역시 도심 통과구간의 길이는 약 34km이고, 칠곡~동대구역간의 길이는 약 29km이다.

도심 통과구간에 대한 시의 종래 방침은 지하 직선으로

동대구역을 거쳐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철도청이 대전 도심 통과구간에 대하여 지상화할 경우에 지하화와 지상화의 공사비 차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대구에도 유사한 방식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구 도심 통과구간에 대한 지상화, 지하화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상화 안은 기존의 경부선 철로를 그대로 두고 별도의 지하 고속철도 노선을 설치하는 것은 기존 도시분단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지상화하고, 철도청의 지원액을 활용하여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철로변 지역의 환경정비에 활용하자는 안이다. 이에 반하여 지하화 안은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하화 방침을 결정한 이상 그대로 추진하자는 안이다. 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나 시의 의회에서는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지상화를 통한 철로 주변 개발과 지하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상화의 경우에도 아직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는 상태이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자료를 보면 도심 통과구간에 대한 지하화와 지상화 차액은 약 7천억원 정도이고, 철로주변 보상비 지원을 합할 경우에 약 9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Ⅲ 도심 통과구간 건설대안

1. 지하화 방안

도심 통과구간에 대한 대안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나 지면 관계상 지하화하는 안과 지상화하는 안으로 구분하고, 지상화하는 안은 다시 환경정비, 전철화, 도로 병설안 등으로 구분하였다. 지하화하는 안은 그동안 검토과정에서 대구시의 공식입장으로 정리된 안이다. 즉 기존 경부고속철도 구간 중 철곡에서 시작하여 도심구간을 지하 직선화하는 방안이다. 이 안의 가장 큰 장점은 고속철

도로 인하여 도심 분단을 심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기존 경부선 철로는 그대로 두는 안이므로 기존의 남북 분단 현상은 개선할 수 없지만, 고속철도 신선 건설에 따른 철로 폭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사비용 증가 및 공법의 복잡화, 공사기간의 장기화 등이 단점으로 될 수 있다. 철도청에서 별도의 제안이 있기까지는 대구광역시의 공식입장으로 정리된 바 있고, 최근 동구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안이다.

2. 지상화 방안

가. 철로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안

지하화 대신에 철로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는 안은 철도청에서 대전 도심 통과구간에 대한 지상화와 함께 주변 환경정비지원 대안을 제시한데 따라 제기된 안이다. 주로 기존 철로의 통과 구간이 되는 서구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상화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안에 의하면 지상화에 따른 공사비 차액 약 7천억원에 철로주변 보상비를 합쳐 총 9천억원 정도를 철로주변 환경개선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정비의 주요 내용은 철로와 기존 도로의 교차선 부근을 공원화하거나 철로변 보상부지의 잔여분을 공원화하는 사업, 철로변 소음차단사업, 도로 정비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철로변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토지 및 건물 등 직접적인 대물보상 이외의 직접 보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 지상화구간을 전철화하는 안

지상화 도심구간을 전철화하는 안

철로변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는 안은 기존 철로의 열악한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는 있으나 철로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



의 환경정비와 함께 지상화 구간을 2복선 전철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복선 전철화는 전철화되는 경부선 복선 철로 가운데에 2개의 철로를 더 개설하여 근거리 전철과 장거리 전차가 6개의 철로를 공용하는 형태이다. 현재 서울~수원간에 운용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수원~천안간에도 개통될 예정이다. 2복선 전철이 개설될 경우에 전철역 주변의 개발과 도시교통체계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의 전철 연결구간이 크게 증가하여 전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전철화할 경우에 철도청의 지원 금액의 상당부분이 철로 개설, 역사 조성 등에 투입되어야 한다. 역사조성은 민자를 활용하면 그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상화 구간과 대구국제공항 연결구간을 전철화하는 안

고속철도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중장거리 도심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중장거리 교통수단을 국제적인 연결 교통수단인 공항과 연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글로벌화가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대구선 이설에 따른 동대구역과 대구공항과의 연결선을 활용하여 복선전철화하면 대구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대구국제공항과 대구선과는 약간의 이격을 두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지역적 특성을 가미한 지하상가나 지상 아케이드 등으로 개발하면 효과적이다. 이 안에 의하면 동대구역에서 대구국제공항간 복선전철화 비용과 대구국제공항간 연결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미~경산구간과 대구국제공항구간을 전철화하는 안

보다 광역적인 안으로 구미~경산구간을 2복선 전철화

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구미시와 경산시를 전철 권역에 편입시키고, 대구국제공항을 복선전철로 연결시키는 방안이다. 경산시의 경우에 학원도시로 대구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대구의 위성도시로 발전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철로 연결할 필요성이 높다. 또 구미시의 경우에 '구미비전 21(2002)'에서 2012년경에 경전철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도시간 연계수단으로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중앙부처는 물론 경상북도 등과 광역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대구지역은 물론 대구경북권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도심통과구간과 연계하여 추진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다. 지상화 구간에 도로를 병설하는 안

지상화를 추진하게 되면 기존 주택 등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도로가 없어지거나 주택이 일부만 수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개설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으므로 수용 폭을 확대하여 2차선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용면적이 증가하는 만큼 보상액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으며, 도로 개설에 따른 추가비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안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다른 대안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대안별 비교 검토

각 대안의 평가를 위해서는 계량적 분석은 물론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지하화할 경우를 기준으로 주관적인 측면이 다소 포함될 수 있지만 대체적인 효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각 대안별

특징을 보면 지하화의 경우를 기준으로 주변 환경개선만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투자대비 효과가 크고 공사적인 규제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광역화나 전철화 정도가 증가할수록 투자대비 효과가 적고 공적, 사적인 규제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고속철도 대구 도심 통과구간 건설대안 비교


구분	지상화				
	철로주변 환경개선	2복선 전철화			도로개설
		도심구간	도심+공항	광역전철화	
공사비	조금 적음	적음	보통	조금 많음	많음
공사기간	조금 짧음	짧음	짧음	보통	보통
지역개발효과	큼	조금 큼	보다 큼	아주 큼	조금 큼
교통여건개선	보통	조금 큼	보다 큼	아주 큼	조금 큼
시민호응도	보통	큼	아주 큼	아주 큼	조금 큼
공사법규제	많음	많음	아주 많음	아주 많음	아주 많음

주: 지하화를 보통으로 보고 비교한 것임.

V. 결론 및 시사점

고속철도 개통의 가장 큰 목적은 경부축에 집중된 도로 및 철도에 대한 부하를 줄여서 교통 및 물류효율을 제고

하는 것이다. 고속철도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연계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연결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두고 본다면 투자대안의 어느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사회간접자본으로 지역 발전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계량적 분석에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대안 이외에 여러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최적 대안 중에서 정책결정자, 지역주민, 지역시민, 중앙부처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국 최종결정은 지역의 잠재력과 환경여건을 고속철도 지상화, 지하화 등 도심 통과구간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안을 선택하는 가치판단이 될 것이다. 충분한 대안 탐색, 대안 평가를 바탕으로 과연 어떤 가치를 더 선호할 것인가에 대한 범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실내공기 오염대책의 현상과 전망

한영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 서론

- 실내공기의 오염문제에 대응하는 규제조치의 실시, 새집증후군 대책 등은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 이러한 규제조치는 건물 준공시에 실내화학 물질농도가 후생노동성이 정한 지침 이하로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 여기서는 일본정부의 새집증후군 대응상황을 정리하고 건물 신축시에 보다 좋은 실내공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점을 배려하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고자 한다.

2. 기술의 내용

- 행정(行政)적인 동기에 대하여
 - 후생노동성은 1997년 포름알데히드의 농도 지침치를 $100\mu\text{g}/\text{m}^3$ 로 정한 이래 2002년까지 총 13종의 실내공기오염 화학물질에 대한 지침치가 정해졌으며 그 후 새로이 추가된 것은 없다.
 - 국토교통성은 1999년 「주택의 품질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성능표시제도 중에 실내공기환경의 성능평가를 삽입하였고 2003년에는 개정된 건축기준법에서 주택내부건재의 포름알데히드방산재료의 사용을 제한시킨 외에도 상시운전환기설비의 설치도 의무화한 바 있다.
- 오염농도실태파악에 있어 측정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 국민의 건강피해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급한 나머지 측정법 등에 정부기구 간에 필사적

으로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예를 들면 후생노동성이 정한 측정법은 신축주택의 경우 대개 30분간의 단기폭로로부터 최대농도를 추정하나 이것을 24시간에 걸쳐 샘플링하는 방산형 시료채취로 바뀌서 측정하면 온습도에 따라 농도가 변하는 포름알데히드 측정에서는 24시간의 평균농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며 온습도의 주야간 변동이 심한 계절에는 24시간 평균치는 30분간의 최대농도와 비교한다면 과소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보다 양호한 공기환경목표에 대하여

○ 전자제메이커나 시공업체의 현장대응 결과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최근 수년간 개선된 것은 전국규모의 조사 자료로 알 수 있으며 똑같이 톨루엔, 크실렌 등의 VOC농도도 조금씩 저감경향에 있고 특히 신축건물에서는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 새집증후군 문제가 갑자기 클로즈업된 초기에 건축설계, 시공자 등이 대응하는데 당황한 점도 있었으나 공적인 규제계획이 정비됨에 따라서 설계, 시공도 쉽게 되어가고 있으며 주택성능표시제도에서는 톨루엔 등의 VOC에 대해서 준공시에 실측농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건재선택의 근거가 되는 방산등급구분의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며 톨루엔 등에 대한 사용제한은 지금까지 없는 것이다.

□ 주택성능표시제도에서 준공시 농도측정은 후생노동성의 측정지침에 준하여 모든 내부기구나 서랍 등을 개방하고서 5시간 이상 외부기구의 반입을 폐쇄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 준공시 농도측정은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층의 남쪽 면에 위치한 거실을 측정 장소로 하는 일이 많다.

○ 수납관련 부품이 많은 부엌은 특별대책이 필요한 공간으로 감수성이 높은 화학물질과민증이 있는 사람은 스테인리스로만 구성된 부엌이 적합할 것이다.

□ 개정된 기준법의 시행으로 24시간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 환기시스템은 급기(給氣)와 배기(排氣)를 기계로 행하는 것으로 실내가 부압(負壓)으로 유지되면 벽체내의 결로를 방지하는데 좋기 때문에 주택에서는 급기는 자연식으로 배기는 기계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주택이 충분히 기밀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기팬에 의해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기가 역으로 흘러 들어와 화학물질농도의 저감효과가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감수성이 큰 사람은 방의 국소환기시스템이 필요할 경우도 있으며 바닥 밑이나 천장내부와 같은 비거실 공간에 사용하는 건재를 주택성능표시제도가 정한 등급 이상 또는 저 VOC성능이 부가된 건재를 선택해야 한다.

□ 실내 화학물질의 발생책임은 몇 할은 설계시공업자에게 있지만 나머지 몇 할은 주거자에게도 있다.

○ 입주자의 가구나 생활용품의 반입정도는 입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며 창을 항상 개방하고 사는 습관 등도 입주자에 따라서 다르다.

○ 새집증후군 대책에 대해서도 개인에 따른 미묘한 문제로 개인차가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 법은 국민을 위해 최저선을 기준지침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용은 지자체의 행정이 하고 실행판단은 주거자측에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 일본의 건강주택협회의 활동에 대하여

○ 보다 좋은 실내환경 조성은 설계·시공자와 주거자의 상호신뢰와 노력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으며 화학물질만이 실내 환경오염 원인의 전부는 결코 아니다.

○ 새집증후군 대책은 주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눈이 있어야 한다.

○ 주택 내에서도 동물유래의 감염증상이나 곰팡이나 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증상 등 실내공기환경 중에는 여러 오염인자가 존재한다.

○ 일본건강주택협회는 “공기환경부회”, “방결로(結露)부회”, “방균, 방곰팡이부회” 등을 구성하여 건강주택 조성을 목적으로 NPO의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 항상 중요한 통풍과 환기에 대하여

○ 일본의 개정된 건축기준법 제28조에는 창문에 의한 환기는 종래와 같이 필수요소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0.08ppb 이하 지침치는 발산이 많은 여름철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달성 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 창문을 열고 하는 자연적인 환기 즉 통풍이 경시될까봐 걱정이나 자연환기와 기계식환기 및 새집증후군 대책으로써의 환기를 비교하고 이들의 역할분담과 중요성을 강조해야 함은 대단히 중요하다.

○ 넓은 의미에서 환기는 통풍을 포함하며 설계상으로도 나누어 취급하지 않으면 복수의 기능이 혼란을 주어 어떤 기능도 만족되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다.

○ 실내공기를 바꾸는 목적에는 “실온조절”과 “공기청정도 유지”의 두 가지 다른 목적이 있으며 통

풍은 전자를 환기는 후자를 목적으로 하는 대응수단으로 생각하면 각각의 특징이 명확하게 된다.

○ 통풍을 활용함에 있어 몇 가지 과제는

- 통풍시 사용하는 개구부(開口部)와 관련된 상품개발 등 건축설계상의 과제
- 주택 주위의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과제
- 주거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친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과제 등이다.

○ 주택의 환기는 건자재나 가구에서 유래되는 화학물질만이 아니고 생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습기나 냄새를 배출 또는 회색하기 위한 수단이다.

○ 대형사무실이나 공장 등에서는 이전부터 공기조화설비나 기계적환기설비가 사용되어 왔으며 환기설비의 설계·시공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도 아직은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주택설계자, 기계설비 개발자, 시공자 등의 전문가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거주자의 관여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에 대한 민감도에 개인차가 있듯이 에탄올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도가 개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아직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는 않으나 화학물질로 인한 괴로움현상(chemical harassment)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 고농도 화학물질에 폭로되거나 저농도에서 장시간 폭로되는 결과에 대한 괴로움이나 새집증후군 또는 화학물질 민감증이라 부르는 증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 포름알데히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을 가지고 환자와 비환자를 이용하여 80ppb를 전후한 실내 공기 환경하에서 실험을 한 결과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 새집증후군 대책은 국민보건에 관한 행정당국의 정책과 원인물질을 사용하여 건자재를 만드는 사업자를 위시한 설계·시공자 및 주택거주자가 일체가 되어 실내공기환경이 지침치 이하로 유지되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 실내공기환경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풍과 환기는 항시 중요함을 거주자가 인식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실내오염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차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문가 제언

□ 대기상에 분산되어 있는 VOC물질의 농도나 아황산가스 및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농도가 특히 인구밀집지역과 교통량의 증가에 기인하여 중대한 환경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신축건물에서의 새집증후군현상도 이미 선진국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후 점차로 우리에게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 합판이 중요한소재로 쓰이던 과거에는 합판의 접착제로 아무런 규제없이 사용되던 포름알데히드가 현재는 사용금지에 이르렀고 기타 석유화학분야에서 중요한 중합이나 합성재료로 쓰이는 화학물질이 결국은 모두가 실내오염을 일으키는 주요한 화학물질로 인정되어 실내오염 화학물질로 규제를 받고 있다.

□ 코팅이나 접착제품에서의 유기화학물질의 사용규제의 영향으로 용제형은 비용제형으로 또는 수성으로 변환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소재와 공정이 소위 사전오염방지기술 또는 청정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적인 지원이나 기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고 있는 이유도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보건 위생적인 영향연구에 기인하는 것이다.

□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에서의 실내공기 오염대책을 비롯한 새집증후군 대책에 대한 현상과 대표적인 환기와 통풍의 필수적인 중요성 및 화학물질에 대한 개인차의 문제 등은 실내공기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할 기본지식을 제공한 것으로 주택의 설계자나 건자재의 제조사업자 및 시공자 등이 꼭 알고 대처해야할 것으로 생각하며 일반인들도 주거생활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조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자료출처 : <http://reseat.re.kr>〉





SEMINAR

제 171 차 월 레 세 미 나

IT Revolution



임 주 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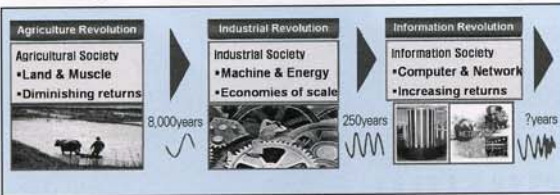
편집자 주 : 지난 7월 21일(수) 18:00~20:00까지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71차 월레세미나」의 발표 내용에서 일부 발췌하여 요약·정리하였다.

CHANGES

1. Big Cha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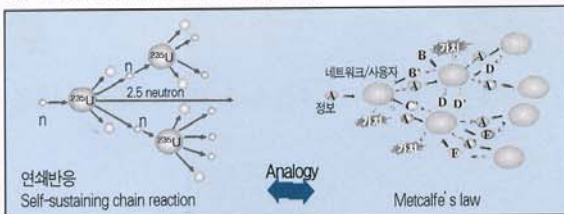
- Internet delivers 6 billion emails every day
-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we've achieved 50 times productivity growth during the 200 years
- Processing power of a computer today is comparable with 10,000 computers of 25 years ago

2. Driving Forces of the Cha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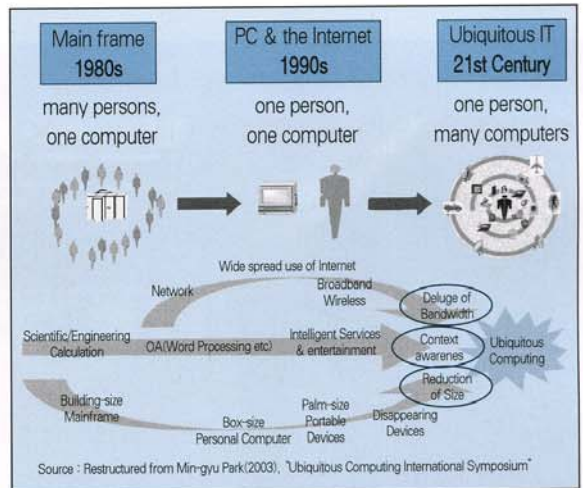
- Industrial Revolution: steam engine
 - James Watt invented steam engine in 1765
 - spinning machine was invented in 1770
 - thereafter, era of mass production has come in 50 years after Watt, 150 times gross increase in fabric production with 90% price down
- Information Revolution: computer
 - Internet = computer + communications
 - Information explosion

3. Information Chain-Re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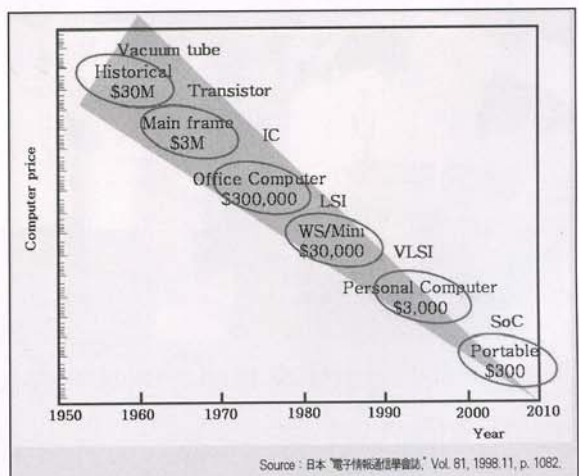


- The value (utility) of a network equals the square of the number of users
- More users, More values created
- The number of the Internet users is reaching 633 million

4. Changes of Compu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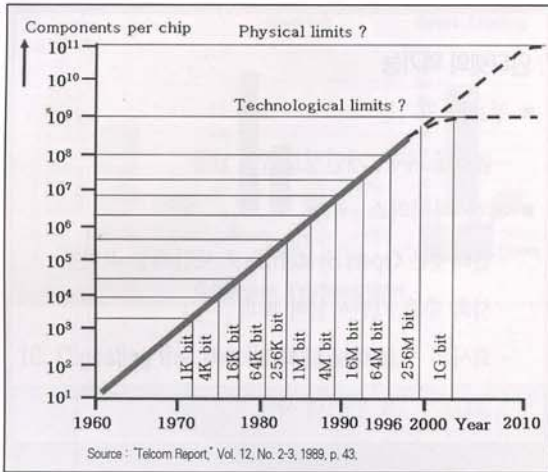
5. Progress in Computer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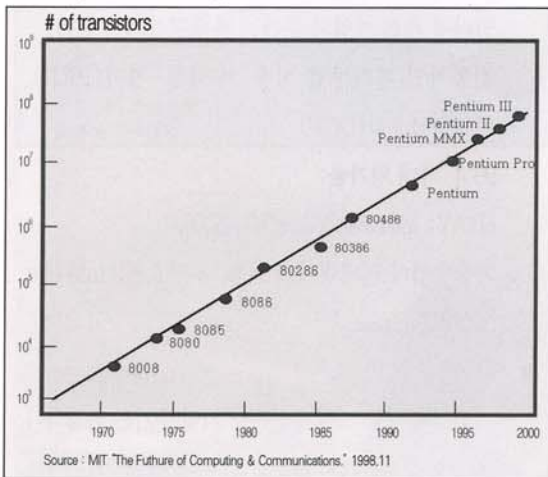
Source : 日本「電子情報通信学会誌」, Vol. 81, 1998.11, p. 1082.

SEMINAR

6. Progress in Memory Device



7. Progress in Microprocessors



INTERNET IMPACT

1. 인터넷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 Prosumer의 탄생
Producer + Consumer

-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는 다품종 소량 주문형 상품
-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상품을 값싸게 안방에서 구입 (최고의 기업만 생존 가능)

2. 인터넷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20세기 초
 - 육체 노동자: 90%~95%차지,
 - 미국의 지식근로자: 40% 수준(현재)
- 정리해고 대상
 - 육체 노동자의 40~75%, 중간 관리층 80%
- 근로자의 개념이 변함
 - 산업사회: 최소비용으로 근로자 활용(비용의 개념)
 - 지식정보사회: 지식 근로자의 지식과 정보를 네트워킹화하여 재창조(자산의 개념)
- 재택근무의 확대
 - 2000년 미국에서는 1천 900만명 재택근무 (전체 근로자의 10%)
 - 2004년에는 4천만명 예상(전체 근로자의 28%)

3. 인터넷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 교육의 방법과 기회를 획기적으로 개선
 - On-line 교육
 - 사이버대학 출현
- Peter Drucker: 30년 후 대학 캠퍼스는 유물이 될 것이다.
- 영국 전기공학회 보고서: 향후 20년내 학교 없어진다.(동아일보 2000. 6. 13. 12면 기사)
- MIT 총장(Charles Marsteller Vest)
 - 현재 미국의 대학교수는 70만명이나 향후 20년내



5만명으로 감소될 것이다.

4. 전자상거래 비용절감 효과

- 산업연구원에서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B2B를 완전 도입할 경우 전자산업은 30~35%, 유통은 31~33%, 자동차는 28~31%, 조선과 중공업은 7~8%, 철강은 5~6%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분석
- MIC와 산업자원부가 합동으로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을 구성
- ebXML 메시징 서비스 규격 v2를 OASIS에서 승인 (2002년 9월)
- 공공부문(G2B)과 민간부문(B2B) 표준화 추진

5. 홈쇼핑 유통혁명(On-Line 유통시대 개막)

6. Digital 경제의 우려되는 사항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확대
 - 미국의 경우 270만명의 부유층이 하류층 1억명 수입과 같다.
 - 1930년대의 대공황 이래로 빈부격차가 제일 심해졌다.
 -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절대 빈곤 상태
 - 경기가 활성화 되었음에도 노숙자는 증가(70만명)
- 우리나라도 세계은행의 보고에 의하면 1997년에 비

해 빈곤층이 현재 2배로 증가(20% 수준)

7. 인터넷의 역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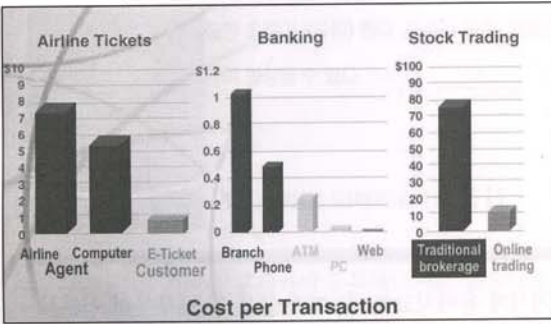
- 정보화 역기능
 - 음란물 유통, 개인정보 오·남용
- 해킹, 바이러스
 - 인터넷은 Open System으로 보안기능 취약함
 - 사회 주요 기반시설의 파괴
 - 회사의 주요 정보 탈취 및 파괴
 - 2003. 1. 25. 인터넷 사태

8. 인터넷 거품론(Internet Bub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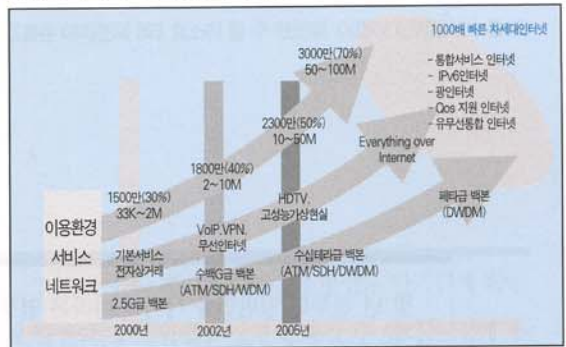
- 거품 주장
 - 인터넷 관련 기업의 주가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 전통적인 평가방법 적용: 수익성 평가(PER), 할인현금흐름(DCF)
 - 99.4. 과대 평가율:
 - eBAY: 3,010%, YAHOO: 509%
 - 거품방생이 인터넷이란 이름, 후광효과(Halo effect) 때문
- 적정 주장
 - 기업의 성장률 고려시 인터넷 기업 주가는 적정하다.
 - 성장률을 고려한 평가방법: 매출액 평가(PSR), 가입자당가치평가
 - Achramowicz, 블로젯 등 기업가치 고려시 저평가 되어 있고 eBay의 1인당 매출액은 월마트의 4배에 달함.
 -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성과 생산성 및 시장지배력이 높기 때문

SEMIN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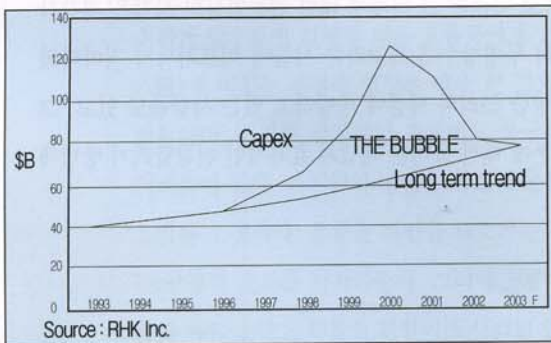
9. New Ways of Doing Business



11. 우리나라 인터넷 발전전망



10. Digesting the The Capex Bubble



마라톤과 건강



신진교 | 경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몇 년 전부터 일반인들 사이에 마라톤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런 틈을 타 대부분의 언론사들과 지방 자치단체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마라톤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이에 따른 참가자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그 자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은 제각각이다. 마라톤을 하면 일찍 죽는다는 사람에서부터 무병장수에 최고라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생각들을 망라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 중에는 타당한 논리와 사실에 바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다. 이에 필자는 마라톤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효과적인 건강달리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왜 뛰어야 하는가?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의 효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크게 호전되었다.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육체적 편안함과 풍부한 식생활이다. 이제 우리들은, 극빈층을 제외한다면, 잘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보릿고개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만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망에 이르는 가장 큰 원인이 암이나 흡연이 아닌 바로 비만이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살이 찐다는 것은 섭취한 영양보다 활동을 적게 한 때문이다.¹⁾ 항간에 물만 먹어도 살찌더라는 소리는 사실일 수 없으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렇다면 비만을 극복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극단적인 처방으로 단식을 하는 것이다. 즉, 신체에 유입되는 영양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비만을 극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체는 자신의 몸에 저장하고 있

1) 비만이 건강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호흡과 순환기 계통을 넘어 신체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알콜성 지방간을 제외한다면 지방간은 간에 지나치게 영양이 공급된 때문이다. 간에 기름기가 많으니 간도 이제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신체는 점점 활기를 잃게 된다.

육체적 편안함과 풍부한 식생활에서 비롯되는 비만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운동은 비만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진대사와 근력강화, 그리고 신체기능의 활력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한마디로 마라톤이란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달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육과 함께 신체가 많은 영양소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며, 호흡기 및 순환기 계통에 원활한 흐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육, 영양소 및 호흡은 마라톤의 3대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삼위일체가 될 때 마라톤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

는 지방을 분해하여 운동에너지로 활용하게 되고, 그 결과 살이 빠지게 된다. 이 방법은 단기간에 확실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대신, 극단적인 방법으로써 만일의 경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의 방법은 소식을 하는 것이다. 이는 활동을 적게 하는 만큼 영양을 적게 섭취하게 함으로써 신체를 매우 효율적이게 만드는 방법이다. 불필요하게 많이 먹을 경우 오장육부(五臟六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소식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기가 힘들다는 점에 소식의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 방법은 바로 운동하는 것이다. 즉, 과도하게 영양을 섭취한 만큼 운동을 통해 소비하는 것이다. 운동은 비만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진대사와 근력강화, 그리고 신체기능의 활력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꾸준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비용이 들며, 또한 계층과 싸워야 하고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마라톤이란 무엇인가?

흔히 일반인들은 특정의 사람들만이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마라톤을 좋아한다고 하면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마라톤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한 잘 할 수 있는 대중적 운동 가운데 하나이다.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렇다.

한마디로 마라톤이란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²⁾ 우리의 신체는 간을 비롯 혈액과 세포를 통해 영양소를 저장하고 있다. 달리기를 시작하면 신체는 근육을 통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글리코겐)를 서서히 사용하게 된다. 이때 혈액은 필요 영양소 및 산소를 공급해 줌과 동시에 영양소 사용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호흡기는 산소의 공급 및 배출, 그리고 영양소 공급을 위한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³⁾ 논리적으로 볼 때, 빨리 달리게 되면 근육은 짧은 시간에 많은 영양소와 산소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이런 신체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호

2) 본 개념화는 순전히 필자의 견해에 불과하다. 사전적인 의미나 다른 사람들의 개념화와는 다르다는 점을 밝혀둔다.

흡이 가빠지게 된다. 폐활량이 좋은 사람은 한 번 호흡으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잘 달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우리가 오랫동안 달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육과 함께 신체가 많은 영양소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며, 호흡기 및 순환기 계통에 원활한 흐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육, 영양소 및 호흡은 마라톤의 3대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삼위일체가 될 때 마라톤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⁴⁾

나도 달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마라톤 하면 먼저 겁부터 먹는다. 아니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라톤을 멀리 하려고 한다. 그러나 마라톤의 개념에 비추어본다면 이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먼저, 초보자의 경우 자기가 가장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속도(시속 6-8Km 정도)로 달려 본다. 단, 처음에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오늘 10분을 뛰었으면 하루쯤 쉬고 5분씩 늘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초보자의 경우 반드시 하루걸러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육이 쉬면서 스스로 단련되는 기회를 주는 원리이다. 평소 운동하지 않던 사람의 경우 처음에는 하체근육은 물론 다양한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은 신체가 단련되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겁먹지 말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회복된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히려 상쾌한 통증이라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다.


3) 운동전에 몸을 푸는 것은 근육을 이완시켜 줌과 동시에, 원활한 영양공급과 혈액순환을 위해 몸을 데워주는 것과 같다. 몸을 완전히 풀지 않고 운동을 할 경우 필요영양소와 공급영양소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 아랫배가 당겨지면서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원리에 따라 침기 어려울 정도로 숨이 차 오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금방 회복되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4) 통상 갑작스런 노동이나 운동 후에는 근육통을 느끼게 된다. 이는 세포에 축적되어 있는 영양소 사용을 위해 모세혈관이 확장된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신체가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 사용의 효율성을 높게 되므로 운동능력은 물론 체력이 증진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지속하면서 50분 내지 1시간 정도 달릴 수 있으면 이미 상당한 단련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하체근육이 엄청나게 발달했을 것이며, 호흡기는 물론 오장육부의 기능도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기본적인 신체적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서서히 달리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달리는 시간도 더욱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충분한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90분 이상을 달릴 수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욕구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오르막 달리기와 내리막 달리기도 시도해 볼만 하다. 주말 같은 날 장거리 달리를 시도하는 것도 매우 즐거운 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도 두려움이?

마라톤의 긍정적 효과를 전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려야 한다. 과욕은 금물이라는 점에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한다. 항상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한다는 생각으로 달려야 한다. 둘째, 장비, 특히 러닝화는 전문화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 운동화나 테니스화는 적절하지 않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을 달려야 하는 운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러닝화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전문 매장 활용). 셋째, 운동량이 늘어나면서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 지나친 체중감량 욕심으로 잘 먹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 넷째, 골프나 테니스에 입문하기 위해 레슨을 받는 것처럼 마라톤을 위해서도 반드시 레슨을 받아야 한다. 매우 정치(精緻)하고 과학적인 운동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레슨은 필수적이다. 직접적인 레슨이 어려운 경우 마라톤 사이트에 들어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혼자 보다는 함께 어울려 달리는 것이 좋다. 재미도 있고 지식도 공유하고 뒤통이도 즐겁다. 이를 위해서는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순한 소화불량에서부터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암에 이르기까지 일망타진(一網打盡)할 수 있는 운동, 바로 마라톤입니다. 산학경영기술연구원 마라톤클럽 결성에 동참하시길 권유합니다. 

용역명 : 지방분권화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

지방은행의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SWOT) 분석과 전략

편집자 주 : 본 원고는 지난해 대구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용역 중 김지수 본원 부원장(영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 작성한 제4·5장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요약한 것입니다. “지방은행의 경영전략의 세부추진 과제”의 내용은 방대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연구원으로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은행의 기회와 위협

(1) 기회요인

지방분권화의 추진과 지역개발 사업의 확대

최근 「참여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분권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하여 지방분권의 폭을 더 넓히려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방분권 움직임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은 지역을 영업기반으로 삼고 있는 지방은행이 지역 중추금융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금융수요의 변화

기업의 자금조달과 운용기법이 향상되고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또한 노령화 사회의 진척 등 인구·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앞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이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수용한다면 새로운 수익모형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완화, 겸업의 확대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규제완화, 겸업의 확대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같은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자산의 공급조건을 크게 변화시킴으로써 금융혁신을 야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되고 은행, 증권, 보험업의 상호진출과 연결이 더욱 촉진되며,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도 더욱 비약적으로 발

전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지방은행에도 새로운 금융기법과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화

IT, BT, NT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기술사업과 벤처기업이 확대되는 등 국내외의 산업구조가 급속히 재편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역의 산업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은행이 고부가가치의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2) 위협요인

금융의 탈중개화

최근 금융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이 주식, 채권, CP 등 직접금융수단에 의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됨에 따라 직접금융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에 있어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금융의 탈중개화(financial disintermediation)'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투자가의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투자수익을 중시하므로 수익성이 높은 투자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소위 '질로의 도피(flight to quality)' 현상이 촉진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권에 자금조달과 운용 면에서 위협이 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재편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은 퇴출과 합병 등을 통해 많은 구조적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현재에는 다른 은행과 합병화 전략을 통해 대형화한 리딩뱅크 그룹(국민, 우리은행 등)과 리딩뱅크 그룹에서 뒤쳐진 2선은행 그룹(외환은행 등), 그리고 지방은행 그룹(대구, 부산은행 등)으로 재편되어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지만 앞으로 이들 은행의 경영이 모두 안정화되는 경우에는 크게 대기업과 초우량가계를 주요시장 포지션으로 기업 및 가계금융을 시행하는 대형화은행과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과 우량가계를 대상으로 특화 전문금융을 시행하는 전문화은행, 그리고 주로 중소기업 및 우량 서민가계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가계금융에 집중하는 지방은행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의 재편 방향은 아직도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지방은행은 규모가 열세하고 수익기반이 취약하므로 대형은행의 합병의 대상이 되기 쉽다. 지방은행 중 시중은행과 차별화 되고 건전성이 우수한 은행만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중은행의 대형화와 종합금융화

지방은행은 지역에서 시중은행과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점차 더욱 대형화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도 전국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자본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역시장을 놓고 시중은행과 경쟁해야 하는 지방은행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금융기관간 경쟁심화

금융의 겸업화, 개방화, 국제화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의 예대마진은 더욱 축소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경영위험도 더욱 증대하고 있다.

지방 영업기반의 취약화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짐에 따라 지방의 산업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지방은행이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 지역에서 주력산업의 부진과 대체산업의 미발달로 산업의 공동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의 소득수준도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을 근거로 하는 지방은행의 영업기반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비용 증대

최근의 금융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바탕으로 점차 장치산업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하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취약하므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다.

2. 지방은행의 강점과 약점

(1) 지방은행의 강점

지역의 중추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

각 지방에는 상호저축은행, 투자신탁,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지점도 상당수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에서 활동하는 여러 기관 중 자금의 조달과 공급 면에서 보면 지방은행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

밀접한 인적네트워크와 지역정보 수집의 우월성

금융사업자로서 지방은행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지역정보의 접근성과 정보수집의 용이성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일 것이다. 정보는 금융사업의 수익원을 창출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은행의 고객은 대부분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이다. 이들은 모두 대부분 지방은행에

대하여 예금자인 동시에 대출자이며 지방은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지방은행은 지역 주민의 특성과 기업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높은 지역내 인지도와 고객충성도

1967년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이 창립된 이래 지방은행은 각 지역에서 20~30년간 지역의 중추적 금융기관으로서 해당 지역의 영업에 주력하여 왔다. 또 그간 지방은행은 자금공급을 통한 지역산업의 육성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행함으로써 지역과 밀착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결과 각 지방의 주민들은 지방은행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지역에 공헌하는 기관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은 수도권에 비하여 아직도 보수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애항심이 높다. 따라서 지방은행에 대한 애착이 높고 그에 따라 고객충성도도 타 은행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내 점포망의 수적 우세

대부분 지방은행은 각 활동지역에서 최다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밀집한 점포망은 지방은행의 고객에게 금융서비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므로 지방은행의 영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물론 지나친 점포의 수는 오히려 은행의 비용을 가중시키고 비전문화 서비스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포채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시 제고되고 있다.

국내외를 불구하고 대부분 온라인뱅킹은 일부 기존 고객을 온라인으로 전환시키기는 했지만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데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뱅킹의 개발과 투자에는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나 투자의 증가속도 이상으로 등록 고객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뱅킹의 비용절감 효과도 생각보다는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행들은 점포전략을 수정하여 오고 있다.

(2) 지방은행의 약점

영업구역의 제한

영업구역의 제한은 지방은행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활동의 글로벌(global)화와 광역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은행은 활동범위가 지역에 한정됨으로써 고객의 금융수요를 충족하고 영업력을 확장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높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시중은행보다도 높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 부과되고 있다.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은 지방은행에 대해 자금운용을 크게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지방은행은 실물 및 금융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역내 지원가능 대상 중소기업이 부족하므로 의 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총액한도제의 삭감 등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 며, 대출재원의 한계로 소비자금융을 비롯한 가계자금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지방 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 지금보다도 더욱 완화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지방은행은 한계 중 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채권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금운용에 대한 자율성이 저해됨으로써 자금 운용의 비효율화가 초래되어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하기 쉬운 형편에 있다.

규모의 열세

지점제도(branch bank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 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작으므로 자금력 및 영업력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지방은행은 자 금력 부족으로 영업확대를 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금융업무의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전산장비 및 시스템 개발투자의 제약으로 정보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거나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데 한계 가 있으며, 이자율 설정에 독점력을 갖지 못하므로 수동적인 가격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 다.

핵심역량의 부족

대부분 지방은행은 핵심역량이 부족하다. 지방은행의 업무는 대부분 전통적인 예대업무에 집중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업무도 시중은행에 비해 크게 차별화 되어 있지 않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에 비해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핵심역량을 정립하고 자원의 배분도 이러한 업무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하여 비교우위적인 수익모델이 정립되 어 있지 않고 자원의 배분도 이러한 역량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핵심역량의 발휘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전문가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

낮은 인적 생산성

조직원의 보수적 성향

위험관리 기능 취약

금리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의 축적과 시스템의 개발 등 하부구조가 미흡하고 위험관리 전문가도 충분히 양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전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3. 지방은행의 SWOT 전략

(1) SWOT 전략의 목표와 수단

이상과 같은 지방은행의 기회와 위협,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다음 [그림 4-2]와 같은 SWOT 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림에서 보듯 기회와 위협, 강점과 약점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네가지 조합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SWOT에 의한 네가지 조합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 ① 강점을 활용하여 기회를 포착하려는 강화전략(Strength - Opportunities: SO)
- ②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활용하려는 보완전략(Weakness - Opportunities: WO)
- ③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에 대처하려는 보강전략(Strength - Threats: ST)
- ④ 위협에 대처하여 약점을 극복하려는 극복전략(Weakness - Threats: WT)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은행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전략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였다. SWOT의 네가지 조합의 전략에 대하여 설정된 경영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SO 전략 목표: 지역선도은행의 역할을 통한 수익기반의 확충

지역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 지역정보 수집의 우월성, 밀접한 인적네트워크, 높은 지역인지도와 고객충성도 및 지역내 점포망의 수적 우세 등 강점을 발휘하여 금융수요의 변화나 규제완화, 겸업 확대 등 금융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분권화와 지역개발사업의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익력을 창출한다.

② WO 전략 목표: 목표시장 설정을 통한 핵심역량 사업의 강화


영업구역의 제한과 높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규모의 열세 및 핵심역량 부족 등 지방은행이 가진 취약점을 극복하고 금융산업 변화와 지방산업의 육성에 따른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은행이 집중해야 할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이에 핵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한다.

③ ST 전략 목표: 지역밀착화를 통한 차별화 은행의 추구

금융산업의 탈중개화와 구조재편, 시중은행의 대형화와 종합금융화, 금융기관간 경쟁심화, 지역 영업기반의 취약화 등 지방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지방은행이 가진 우월한 지역 정보의 수집

능력이나 인적네트워크, 고객 충성도 등 장점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은행 경영의 지역 밀착화를 추진하고 시중은행과 차별화를 모색한다.

④ WT 목표: 효율적이고 안전한 은행의 추구

금융기관간 경쟁심화나 지역 영업기반의 취약화 등 위협에 직면하여 영업구역의 제한이나 높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규모의 열세 등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지방은행이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고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시중은행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은행이 되도록 노력한다. 

[그림 4-2] 지방은행의 SWOT 전략

 <p>Strength and Weakness</p> <p>Opportunities and Threats</p>	<p>Strength</p> <p>지역 중추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 지역 정보수집의 우월성 지역내 밀접한 인적네트워크 높은 지역 인지도와 고객충성도 지역내 점포망의 수적 우세</p>	<p>Weakness</p> <p>영업구역의 제한 높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규모의 열세 핵심역량의 부족 낮은 인적 생산성 조직원의 보수적 성향 위험관리 기능 취약</p>	
	<p>Opportunities</p> <p>지방분권화의 촉진 지역개발 사업의 확대 금융수요의 변화 규제완화 경업의 확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산업구조의 변화</p>	<p>Strength - Opportunities(SO) 강화</p> <p><지역선도 은행의 역할을 통한 수익기반 확충> 지역산업혁신의 중추기능 담당 지역개발사업에의 참여 신금융기법의 도입 영업외수익 기반의 확충</p>	<p>Weakness - Opportunities(WO) 보완</p> <p><목표시장 설정을 통한 핵심역량 사업의 강화> 중소기업 전문은행의 기능 강화 가계대출 및 소매금융의 강화 전자금융 서비스의 강화 합리적인 자회사 정책 추진</p>
	<p>Threats</p> <p>금융의 탈중개화 금융산업의 구조재편 시중은행의 대형화와 종합금융화 금융기관간 경쟁심화 지방 영업기반의 취약화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비용 증대</p>	<p>Strength - Threats(ST) 보강</p> <p><지역밀착화를 통한 차별화된 은행> 지역밀착화 서비스의 강화 관계금융의 강화 지역 신용정보의 수집과 평가체제 강화 차별적인 유통채널 전략 추진</p>	<p>Weakness - Threats(WT) 극복</p> <p><효율적이고 안전한 은행> 가치창조 경영의 추구 부실채권의 처리기능 강화 경비절감 위험관리 기능의 강화 성과위주 조직관리 전문가 확보 및 직원교육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 네트워크와 협력체계의 구축</p>

제171차 월례세미나 개최

지난 7월 21일(수) 18:00~20:00까지 대구그랜드호텔에서 「IT Revoulution」이라는 주제로 제171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146차 이토회 개최

지난 8월 14일(토) 오후 3시 앞산에서 제146차 이토회를 가졌다.

산학리뷰, 웹진으로 전환!!!

정보교류의 인프라와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전달의 적시성 제고, 쌍방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산학리뷰를 인쇄물 형태에서 웹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004년 8월까지는 기존 인쇄물로 발행하며 9월부터는 완전히 웹진으로 발행할 예정이므로, 현재 산학리뷰를 구독하시는 분께서 웹진 형태의 산학리뷰도 계속 구독하시려면 본원으로 반드시 이메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홈페이지 및 웹진을 제작 중에 있으니 좋은 의견 있으시면 홈페이지(www.uri.or.kr) 게시판 또는 이메일 (uri@uri.or.kr) 등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 조인술

- 영남이공대학 감성섬유·의류마케팅 계열 교수
- 주소 : 대구시 남구 대명7동 1737번지
- TEL : 053)650-9302



■ 하춘수

- 대구은행 부행장(정보시스템본부장)
- 주소 :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번지
- TEL : 053)740-2009



회원동정



■ 김석진

김석진 경북대학교 교수는 『선물 옵션의 기초와 거래전략』, 삼성사, 전정판, 2004. 8. 648면

- 『지방분권화시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 산학 경영기술연구원 연구총서9, 2004. 7. 265면
- “회사재건 선택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17-1 (2004. 05), 221-252, 한국재무학회
- “구조조정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금융학회지 9-1 (2004. 06), 99-129, 한국금융학회
- “특허취득의 공시효과”, 경상논집 32-1 (2004. 8), 21-35,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 “Determinants of Reorganization Choice and Successful Restructurings: Evidence from Korea After the IMF bailout”, 21세기중한국역합작발전논단 발표논문집, 중국 남개대학, 119-147, 2004. 7. 4.
- “자금부족분을 이용한 자본조달우선순위이론 검증”, 한국산업경영학회 2004년도 하계 학술대회, 531-553, 2004. 8. 27.



■ 김성경

김성경 경주시 부시장은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일본 니가타현에서 개최되는 제6회 한중일 3국 자치단체 교류협력증진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에 참석



■ 김종기

김종기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포항소상공인지원센터 소장은 대구 남서부소상공인지원센터로 이동



■ 신호균

신호균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교수는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의 몽골국제대학교(Mongolia Int'l University)의 초청으로 7월 2일 출국, 경영학부에서 14일간 경영정보학 특강을 마치고 17일 귀국

- 8월 19일 구미 파크비즈니스호텔에서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 7개 시민단체 대표 및 지도자, 기업체 대표,

구미시장 및 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강연회와 더불어 '구미부정부패신고센터'를 개소하여 공동대표로 취임



■ 윤지현

윤지현 성덕대학 학장은 8월 19일 중국 연변대에서 개최되는 '여성발전과 문화' 국제 학술대회에서 '기혼여성의 사회진출과 육아'로 주제 발표



■ 이무근

이무근 경일대학교 총장은 8월 2일 중국으로 출국, 남개대학을 방문해 자매결연협의를 체결하고 5일 귀국



■ 정훈

정훈 (주)우산 및 (주)TECHNO 우산 대표이사는 7월 15일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반도체 및 휴대폰 부품 관련회사인 (주)DIATEL을 설립하고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



■ 조만현

조만현 동우씨엠(주) 대표이사는 7월 20일 ~ 7월 22일까지 사단법인 한국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의 주택관리업자 교육에 참석

- 동우씨엠(주)가 관리중인 관리사무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사무소장연구회를 개최하여 지식경영에 대한 특강과 관리기법의 차별화 및 정보교환을 도모



■ 조재룡

조재룡 (주)한국중소기업컨설팅 대표이사는 7월 2일 2004년 상반기 구미시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입주업체 정기사업실정평가

- 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위원 위촉
- 27일 2004년 경북스타벤처기업 평가 심사위원회



회원동정

참석



■ 황대현

황대현 대구시 달서구청장은 7월 26일 제12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

• 27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집수리사업단, 자원봉사단체, 후원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16개 봉사단체 170여 명이 참여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발대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

• 30일 달서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자매 도시간 청소년 교류사업에 참여한 광주 북구 청소년 등 관계자 40여 명의 방문을 접견하고 격려



■ 정성진

정성진 본원 이사장(국민대학교 교수)은 8월 27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 최용호

최용호 본원 명예원장(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7월 4일 중국 천진의 南開大學에서 “한·일 지방 금융의 발전이 중국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발표, 천진시 房地產開發公司 방문

• 5일 LG전자 천진공장 시찰, 北京陸星罔科技有限公司와 中冠村 방문

• 韓國銀行 北京代表處를 방문하여 金柱勳 수석대표와 한·중 경제협력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

• 7일 대구지방공정거래협의회 자문위원회 참석

• 19일 台北의 중화경제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 비교연구 워크숍」에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으로 주제 발표

• 21일 대만의 경제부 중소기업처, 중화민국 중소기업 협회, 대만 전기전자공업同業公會(TEEMA),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방문

• 22일 대만의 新竹사이언스파크 관리국과, 단지 내 光群雷射科技(K Laser Technology Inc.)와 鴻揚光電(m-Display Optronics Corp.), 志禾工業(Accu Therm Corp.) 방문

• 28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제5대 洪 哲 원장 취임식 참석

축하드립니다

• 장 만 식 회원 딸 결혼 : 2004년 9월 11일(토) 오후 1시 대구 계산성당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21세기 금융비전포럼, "전환기의 금융 산업 정보화 전략", 2004. 7
- 삼성경제연구소, "올림픽 효과의 극대화방안", 2004. 8. 11
- 삼성경제연구소, "지식집프-지식창조의 금맥을 찾아서", 2004. 7
- 세계경제연구원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2004. 5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동향주요지표", 2004. 6
- 한국금융연구원, "국채경매방식이 경매수입에 미치는 영향", 2004. 7
-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2004. 6. 30

정기간행물

-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 2004. 7
-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4. 6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달서", 2004. 8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 · 경북경제동향", 2004. 7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의", 2004. 7 · 8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DYETEC VISION", 2004. 7
- 대구테크노파크, "테크노폴리스", 2004. 여름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2004. 6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포럼", 2004. 7/8
- 산학연종합센터, "산학정21", 2004. 8. 5
-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 2004. 7
-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4. 8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Focus", 2004. 7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004. 8
- 좋은 이웃집, "경제풍월", 2004. 8
- 증권거래소, "주식", 2004. 8
- 증권예탁원, "KSDi@n", 2004. 여름
- 하나은행, "하나은행", 2004. 여름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Corporate Governance Review", 2004. 5 · 6
- 한국무역협회, "무역", 2004. 8
-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과 미래", 2004. 7/8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 기술과 경영", 2004. 8
- 한국산업정보센터, "레이저기술", 2004. 8
-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산학협동 인포", 2004. 8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 2004. 8
- 한국선물거래소, "선물시장리뷰", 2004. 5
-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4. 8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 · 경북지역 경제동향", 2004. 6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4. 7
- 한국음식업중앙회, "뚝배기", 2004. 8
- 한국토지공사, "토지", 2004. 6
- (주)푸드웰, "가실", 2004. 7 · 8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 연혁 및 현황

1990년 6월 지역의 학계 교수, 기업체 경영자, 기관 단체 장이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자는 순수한 취지로 산업자원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창립하였으며, 현재 44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정성진 국민대학교 교수
- 원 장 : 최만기 계명대학교 교수

■ 주요사업

- 산학협동 세미나 개최
- 산업시찰 실시
- 산학리뷰 발간
- 조사분석, 기술개발 연구
- 각종 개발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수행
- 경영자 및 임직원의 교육훈련
- 회원친선 교류사업

■ 회원가입 자격 및 회비

- 학계회원 : 국내외 학계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입회비 5만원, 연회비 7만원)
- 업계회원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연회비 80만원)
- 유관기관회원 : 금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연회비 80만원)
- 유관개인회원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서 개인자격(입회비 5만원, 연회비 15만원)
- 영구회원 : 회비 일시납부 회원 (개인 100만원, 기관 1000만원)

■ 연구원 거래은행 계좌

- 대구은행 : 018 - 04 - 304943 - 001
- 예 금 주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본 연구원에 납부 또는 지원하시는 회비 및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서 연말정산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등록번호 : 502-82-12124).

■ 원고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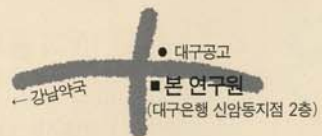
매월 제작 · 배포하는 본 산학리뷰지는 회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적극적인 원고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연구원 사무국 T.(053)959-2861~2)

■ 2004년 8월호 (통권 160호)

- 간 별 : 월간
- 등 록 번 호 : 대구라01089
- 등 록 일 : 1998년 6월 2일
- 발 행 소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발 행 일 : 2004년 8월 30일
- 발 행 인 : 정성진 (국민대학교 교수)
- 편집위원장 : 정인상 (경북대학교 교수)
한성덕 (대구대학교 교수)
- 편 집 위 원 :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장)
김영재 (동국대학교 교수)
김용준 (영남이공대학 교수)
박규진 ((주)애드밸리 대표이사)
박진항 ((주)멀티애드메이저 대표이사)
이동형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황남성 (영남이공대학 교수)
조정일 · 임재현 · 최영애 (상임연구원)
- 기획 · 편집 : 멀티애드(053-751-6562)



URI 社團 産學經營技術研究院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4-1번지
TEL.(053)959-2861~2 FAX.(053)959-2860
http://www.uri.or.kr
e-mail : uri@uri.or.kr

1년 365일

오직 지역만 생각합니다.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 해 온 대구은행은
한결같은 마음과 변함없는 정성으로
항상 지역만 생각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